

해방기 채만식 문학의 자기풍자와 시대감각 연구

박수빈*

요약

본고에서는 해방기에 쓰인 채만식의 소설들을 통해 그에게 해방이란 어떤 의미였는지, 그가 진단한 해방이란 어떤 시공간이었는지, 그의 시대감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해방기 채만식 문학의 출발점이자 이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과거에 대한 채만식의 '죄의식'이다. 일제하에서 친일문인으로 활동했던 그는 해방 후 작고할 때까지 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의 해방기 문학 속 현실비판과 풍자정신은 일종의 제약을 갖게 됐다. 비판하는 대상으로부터 거리감,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해방기 그의 문학에서는 '자기풍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본고에서는 채만식의 자기풍자가 결코 허무주의로만 흐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다. 그는 해방기 소설에서 부정적 인물들을 통해 해방 전후 여전한 세계의 질서를 비판하며 절망했고, 역사소설들을 통해서도 외세에 의존하는 역사가 반복된다면 미군정하에서의 한국의 운명도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의 반복을 경계하고 과거와 단절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침내 채만식은 죄로부터 결백하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길을 가기로 선언한 '소년-인물'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점쳤다. (민족적) 죄의식으로부터 시작된 채만식의 해방기 문학은 우리세계에 여전한 식민성과 비주체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며, 나아가 우리민족이 반복되는 역사의 질곡으로부터 탈출할 길을 모색하고자 한 적극적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채만식, 해방기, 죄의식, 자기고백, 자기풍자, 시대감각, 역사소설, 식민성, 비주체성

* 성신여대 인문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1. 고백의 시공간, '죄의식'과 자기풍자
2. 절망의 시공간, 해방 전후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3. 회복의 시공간, 역사의 반복과 단절을 통한 경교
4. 가능성의 시공간, '양서동물'이 아닐 수 있다면
5. 결론

1. 고백의 시공간, '죄의식'과 자기풍자

'해방기'¹⁾는 '고백'의 시공간이다. 해방기의 문학은 친일문인의 자기규정과 자기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고백과 해명을 강요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고백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문학'은 시작될 수 없었다. 해방기의 친일문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이 고백의 외양을 띤 일종의 '반성문'을 썼다. 우리문단의 소설가들 가운데, 일제말기에 동일한 친일협력단체(조선문인보국회, 1943~1945)에 몸담고, 친일소설을 발표한 바 있는 문인으로는 이광수, 김동인, 채만식이 있다. 세 문인은 또한 공통적으로 해방기 자전적 텍스트를 통해 친일의 과거를 해명했다. 앙드레 지드는 "회고록이 아무리 열심히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언제나 절반만 성실할 뿐이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²⁾고 말했다. 지나간 일을 돌이

1) 해방기의 문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1945년 8·15해방으로부터 1948년 분단정부 수립까지를 하나의 문학사 단위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서 '해방공간'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사적인 단위를 문학사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으로 8·15해방으로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약 5년을 문학사 단위로 묶어 '해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소설 작품을 놓고 볼 때 정부수립 이전과 이후의 뚜렷한 문학적 변별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본고에서는 8·15해방으로부터 한국전쟁 전까지를 '해방기'로 규정한다.

전홍남, 『해방기 소설의 시대정신』, 국학자료원, 1999, 16면 참고.

2) André Gide, 『밀알이 죽지 않으면 *Si le grain ne meurt*』, coll. 'Folio', 1972, p. 278.

켜 생각한다는 의미의 '회고'는 곧 그 일을 완전히 과거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며, 이 시기 친일문인들의 자전적 글쓰기는 친일행위에 대한 '참회'나 '반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지만 그 목적은 자신에 대한 단죄가 아닌 용서를 구하는 것에 가깝다. 이광수는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규정하는 한편 친일협력의 기간을 일제말기로 한정하여 스스로 민족의식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했고, 김동인은 자신의 문학적 공로를 과장되게 전시함으로써 '비운의 조선문 수호자'를 자처했다. 그렇다면 채만식은 어떠했을까. 그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규정했다. 해방기 채만식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의 죄인'이라는 말은, 식민지기를 회고한 모든 문인들의 자기규정 가운데 가장 통렬한 자기반성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읽히며³⁾ 또한 가장 유명한 표현이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친일문인들에게 대중이 요구한 가장 적절한 태도이기도 했다. 세상이 그들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었기 때문이다. 채만식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민족의 죄인』을 썼지만, 그 제목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약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죄인』을 '변명의 텍스트'로 만들고 만다.⁴⁾

해방기 채만식 문학에 대한 연구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민족의 죄인』을 중심으로 '반성의 탈식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⁵⁾이며, 다른 하나는 일군의 세태풍자소설을 중심으로 채만식

필립 르윈,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61면에서 재인용.

3)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은 친일문제와 관련해 우리 문학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한 자기 고백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경훈, 『근대 주체의 좌절과 초극』,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1999, 146면), 이광수, 김동인 등과 비교했을 때 고백의 서사로서 주목할 만한 개인적 '진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박상준, 『〈민족의 죄인〉과 고백의 전략 -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와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제27집, 2009, 278-279면)에서 반성적 텍스트로 평가되었다.

4) 이에 대해서는 좋고, 『일제말기 친일문학의 내적논리와 회고의 전략 - 이광수, 김동인, 채만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를 참고할 것.

5) 이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주요 연구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장성수, 『진보에의

‘풍자문학의 연속과 단절’에 대해 살피는 것⁶⁾이다. 풍자는 채만식 문학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창작기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의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맹순사』, 『미스터 방』, 『도야지』 등 다루는 대상 텍스트가 한정적이고 논의 또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김윤식(『채만식』, 문학과 지성사, 1984)에 의해 채만식의 풍자소설은 풍자정신의 소산이지만, ‘전망을 제시하기 못했기 때문에 1930년대 말부터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되면서, 이후 연구자들이 그의 풍자문학을 ‘니힐리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찰하도록 하는데⁷⁾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해방기의 채만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텍스트는 『민족의 죄인』인만큼, 해방기 채만식 문학연구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민족의 죄인』을 중심으로 채만식 문학 전체를 관통하려는 시도다. 이를 대표하는 연구로 류보선의 『반성의 윤리성과 탈식민성』을 들 수 있다. 그는 해방직후 채만식 문학은 단순히 ‘중간파’의 그것 정도로 읽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죄인의 민족의 죄인’인 자리에서 우리 민족구성원의 고통과 염원을 반영한 탈근대적인 또 다른 해방, 또

신념과 미래의 전망/채만식론』, 『한국근대작가연구』, 삼지원, 1985; 조남현, 『한국 현대 소설 연구』, 민음사, 1987; 한형구, 『채만식 문학의 깊이와 높이』,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조창환, 『해방 후 채만식 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3, 현대문학이론학회, 1993;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최유찬, 『문학의 모험-채만식의 항일투쟁과 문학적 실험』, 역락, 2006; 박상준, 『〈민족의 죄인〉과 고백의 전략 -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와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27, 2009; 김민선, 『해방기 자전적 소설의 고백과 주체 재생의 플롯 - 채만식『민족의 죄인』, 이기영『형관』연구』, 『우리어문연구』40, 2011; 이민영, 『해방기의 자기 고백과 식민사회의 기억 - 이태준의 『해방전후』와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42, 2012; 공종구, 『채만식 문학의 대일 협력과 반성의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54, 2013.

6) 이를 잘 보여주는 최근 연구로 이상재, 『채만식 풍자소설의 반복과 차이』,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2015가 있다.
 7) 채만식의 풍자정신과 풍자문학을 니힐리즘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찰하면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를 채만식 문학의 ‘한계’로 지적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 ‘비판정신의 상실’과 연관시켜 해석하는 연구로 신두원, 『풍자와 니힐리즘적 부정정신의 안과 밖』(『채만식 연구』, 태학사, 2010)을 들 수 있다.

다른 나라만들기를 설파한 채만식 문학은 단연 이채롭고 값진 것”이라고 평가했다.⁸⁾

이 글이 해방기 채만식 문학에 대한 조명을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죄의식’이야말로 해방기 채만식 문학의 출발점이자 이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작고할 때까지 채만식은 단 한순간도 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그의 해방기 문학 속 현실비판과 풍자정신은 일종의 제약을 갖게 됐다. 풍자란 작가가 비판하는 대상으로부터 거리감은 물론, 도덕적 우위까지 확보해야만 대상에 대한 비판으로 보이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기의 채만식은 스스로를 그 위치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문학에서는 ‘자기풍자’가 부각되어 나타난다. 자기풍자와 죄의식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스스로에게 풍자의 메스를 들이던 세 편의 소설을 살펴보겠다.

『민족의 죄인』에서 채만식은 자기 자신을 “약하고 용렬한 지아비”⁹⁾로 규정한다. 그는 이 소설에서 자신의 인간성, 도덕성을 폄하하고, 문인으로서의 지위를 매우 낮게 서술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채만식은 자신의 도덕성, 민족의식의 부재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그 연유를 해명하려 한다. 그는 친일의 동기를 개인적 차원에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1) 해방의 투쟁을 피할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서 오직 저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까지밖에는 궁리가 뚫리지 못한 것은 적실히 나의 약하고 용렬한 사람 됨됨이의 시킴이었음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만이 유독 그렇게 약하고 용렬하였는지 혹은 대체가 개인적이며 소극적이며 퇴행적이기가 쉬운 망국민족의 본성의 소치였는지 그 분간은 막시 모르되¹⁰⁾

8) 류보선, 『반성의 윤리성과 탈식민성』,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1, 85-86면 참고.

9) 채만식, 『민족의 죄인』, 『백민』, 1948. 10, 37면.

10) 위의 책, 36면.

(2) 용맹하지도 못한 동시에 영리하지도 못한 나는 결국 **본심도 아니면서** 겉으로 복종이나 하는 용렬하고 나약한 지아비의 부류에 들고 만 것이었었다.¹¹⁾

이렇듯 죄에 대한 인정과 동기에 대한 부정이 반복되는 「민족의 죄인」에서 그가 인정하는 것은 친일협력 행위를 한 과거 그 자체이며, 꼭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결코 진심으로 일본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의 행위는 비록 죄인의 행위지만, 나의 본심은 반일이나 항일에 가까웠다는 주장¹²⁾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민족의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해방기 채만식의 관심은 죄의 ‘처벌’과 ‘감형’에 있었다. “벌이라는 건 그 범죄가 끼친 영향을 참작하구, 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하구, 그리고 범죄 이후의 심리와 행동을 참작하구, 그래가지구 처단에 경중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¹³⁾이라는 김군의 말이나 “당신야 존재가 미미하니깐 이념에 민족의 심판을 받지두 못하실는진 몰라두, 가사 받아서, 벌을 당한다구 하더래두, 형벌이 쥘 속량해주는 건 아니잖아요?”¹⁴⁾라는 아내의 말에서 이러한 의도는 잘 나타난다.

이 ‘존재의 미미함’은 해방기 채만식의 또 다른 소설 「역로」(1946)를 떠올리게 한다. 고향인 이리에 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는 주인공의 이야기

11) 앞의 책, 46면.

12) 채만식은 자신의 죄목으로 시국소설을 쓴 것과 학병강연에 나선 것을 든다. 시국소설 창작과 관련해서는 “유일한 생화(生貨)가 그때나 지금이나 매문(賣文)이요, 매문을 아니하고는二합二작의 배급쌀조차 팔 길이 없는 철반……. 쓰면서 가끔 배신(背信)을 하다가, 두어 차례나 불려 들어가, 검열관=퇴직 순검한테 꾸지람도 듣고, 문학 강연도 듣고, 하였다.”(위의 책, 1949. 1, 53면)는 말로 가난이 이유였지만, 본인은 가끔 배신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강연에 가서도 늦은 밤 혼자 절박하게 찾아온 한 청년에게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병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털고자 한다.

13) 위의 책, 1949. 1, 61면.

14) 위의 책, 63면.

로 시작되어 기차간 안에서 만난 여러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해방 후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구상을 담고 있는 이 소설에서 친구인 김군의 “강연 몇 번 갔었지?”¹⁵⁾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내가 친일협력행위를 했던 인물임을 알게 된다. 이에 주인공은 핏수를 따질 필요가 없다면서, “존재가 하두 미미하니깐 죄인값에두 쳐주지 않는단 말일세.”(274)라고 말한다. 자신의 미약한 문인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하고, 죄의 처벌 여부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민족의 죄인』은 곧 『역로』의 변주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이 지은 죄의 내역을 읊는 ‘검사(檢事)’¹⁶⁾의 존재 또한 두 소설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역로』에서는 ‘김군’이, 『민족의 죄인』에서는 ‘윤군’이 바로 그들이다. (1)은 『역로』의 김군이, (2)는 『민족의 죄인』의 윤군이 하는 말이다.

(1) 팔월 십오일 오전 열한시 오십구 분까지두 흡혈귀 미영을 쳐부서라. 조선아 자제들이 부형과 농민들이 어서 빨리 이 성전(聖戰)을 승리하두록 지원병에 학병에 증병에 다투어 나가라. 충후의 협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증용을 기쁘게 나가거라.(……)그러다가 오징이 땅 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구 조선은 해방이 되었다 이 소리가 들리니깐, 이번엔 그 입 그 붓을 그대루 가지구 동포여 왜적은 물러갔다.(……)친일파를 없애여라. 민족반역자를 버히라.¹⁷⁾

(2) “저옥히 인간적 양심의 반 조각이라두 남은 놈들이라면, 八·一五

15) 채만식, 『역로』, 『채만식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274면.

본고에서는 『민족의 죄인』을 제외한 채만식의 모든 소설을 위의 전집에서 인용하되, 작품별로 첫 번째 인용 시 각주표시하고, 이후에는 본문의 괄호 안에 페이지를 표기하는 것으로 하겠다.

16) 이 ‘검사’라는 표현은 채만식 스스로가 사용한 것이다. “김군의 대일협력자에 대한 변호는 윤의 말이 아니라도, 억지 옛 형식논리에 기울어진, 그래서 대체가 모두 웅색스럽고 공극투성이였었다. 가사, 완전히 변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격인 내가 우선 “아니 검사의 논고가 옳고, 변호인의 주장은 아모 소용도 없어.” 이런 심리 상태인 데야 더욱 말할 나위도 없었다.” 채만식, 『민족의 죄인』, 앞의 책, 61면.

17) 채만식, 『역로』, 위의 책, 274-275면.

를 당해, 조금이라도 뉘우치는, 부끄러하는 무엇이 있어야 할 꺼 아냐?
(……)오오, 우리의 해방의 은인이 온다. 위대한 정의의 사도 연합군을
마지하자. 이런 소리가 아무려면 그래, 제 얼굴이 간지러워서라두, 제 게
집자식이 면괴스러워서라두 차마 지껄여지며 써지느냐 말야.(……) 그게
사람야? 개도야지만도 못한 것들이지.”¹⁸⁾

일본보다는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파를 더 큰 죄인으로 취급하
는 태도는 두 인물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다. 『역로』와 『민
족의 죄인』은 공통적으로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폭로하고 현재 건국운동
으로 위장된 친일파들의 ‘구명운동(救命運動)’을 비판한다. 두 작품의 주
제의식은 동일하지만, 『역로』에서 『민족의 죄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생기고 그로 인해 텍스트의 자기비판적 성격은 한층 강
화된다. 첫째, 배포가 유하고 굶땀 ‘왕서방’ 또는 ‘되놈’이라 불리는 김군(『
역로』)은 수완이 좋아 주인공은 이들이 걸려 구한 차표를 5분 만에 구해
오는 인물이다. 이때 요령 좋게 “야미차표”¹⁹⁾를 구해오는 김군에게 그건
순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나’는 그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 반면 ‘나’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모든 문필활동을 중단하고 시골로 내려가 버린 “지
조가 깨끗한” 윤군(『민족의 죄인』)을 상대로는 도무지 도덕적 우위에 설
수가 없다. 이로 인해 ‘나’의 죄인으로서의 면모는 한층 강화된다. 둘째, 『
역로』에 없는 ‘변호사’의 존재가 『민족의 죄인』에는 있다. ‘김군’이다. 이
소설은 ‘김’과 ‘윤’의 친일에 대한 설전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한다. 이때
김은 나와 같은 죄인이자 곧 ‘나’의 변호인으로, 윤을 향해 “자넨 지조의
경도(硬度)를 시험받을 적극적 기혈 가져보지 못한 사람. 합격품인지 불
합격품인지 아직 그 판이 나서지 않은 미시험품”²⁰⁾이라고 말하면서, 일제

18) 채만식, 『민족의 죄인』, 1949. 1, 57-58면.

19) 채만식, 『역로』, 앞의 책, 272면.

20) 채만식, 『민족의 죄인』, 위의 책, 59면.

에 대항하여 투쟁한 사람이 아니면 친일파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피고, 검사, 변호사의 삼자구도를 통해 결국 스스로를 재판정에 세움으로써 채만식은 『민족의 죄인』에서 한층 강화된 죄의식을 보여 준다.

채만식의 자기폭로와 자기풍자는 『낙조』(1948)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는 채만식이 『민족의 죄인』과 『낙조』 사이의 시간동안 분단문제를 포착하고 이데올로기 갈등을 바라보면서 한층 강화된 죄의식을 내포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소설에서 역시나 “용렬스런 지아비”²¹⁾인 ‘나’는 국민학교 교원으로, 친일파 경찰 ‘박재춘’, 항일투쟁활동을 하는 ‘최군’, 국방경비대원인 ‘박영춘’ 이 세 사람을 상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 세 인물의 상징성이나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차이가 크지만, ‘나’는 이를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저 “광채도 야심도 패기도 없이 한낱 국민학교의 교원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나”(384)에 비해 재기와 영리함, 민첩한 수완과 패기,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 태도를 가진 그들이 부러울 뿐이다. 그러나 이런 ‘나’도 주변인 가운데 양공주 ‘춘자’에게만은 도덕적 우월감과 동시에 일종의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저 뱃속에서 시방 눈 새파랗고 머리터럭 노랗고 코 오뚝하고 한 것이 수만리 태평양 저편쪽을 향수(嚮愁)하면서 꿈틀거리고 있거니 할 때에 비로소 나는 견딜 수 없는 혐오와 추악감(醜惡感)이 솟아오르고, 하마 구역이 넘어오려고 하였다.”(410)라는 표현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매국행위를 하는 박재춘은 그저 부러워하면서도, 매음행위는 혐오스러워하는 ‘나’. 채만식은 ‘나’가 가장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는 춘자를 통해 ‘나’의 도덕적 우월성의 이중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외국놈한테 정줄 팔아먹은 년이 더러면, 외국놈한테 절겔 팔아먹는 서

21) 채만식, 『낙조』, 『채만식 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387면.

방님네들은 무엇일꾸?(……)자기가 데리구 가르치는 철없는 어린 아이들 더러 왜놈이 되라구 시킨 건 누구신구? 조선말을 내다버리구 왜말을 쓰라구 딱딱거린 건 누구신구?(……)그뿐인감? 왜놈이 물러가니깐 이번엔 왜놈 대신 온 xx놈한테 붙어서, 조선 아이들을 xx놈의 노예로 만드느라 구 온갖 짓 다 하구 있는 건 누구신구? 난 누구들처럼 정신적 매음은 한 일 없어. 민족을 팔아먹구, 민족의 자손까지 팔아먹는 민족적 정신 매음은 아니했어. 더럽기루 들면 누가 정말 더럽꾸?"²²⁾

이와 같이 해방기 채만식의 풍자의 메스는 자기 자신을 향한다. 이때 주인공은 곧 작가 자신이기에, 작품의식은 작가의식을 대변한다. 채만식은 과거의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민족적 정신매음'을 한 자로 설명하면서 죄목들을 스스로 고백한다. 최재서는 일찍이 『풍자문학론』에서 만일 인생이나 사회에 대하여 완전히 허무와 무가치를 느끼거나 혹은 개선에 관하여 아주 절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풍자의 대상으로 인류나 사회를 들지 않고, 풍자의 메스를 자기 자신으로 돌릴 것이라고 했다.²³⁾ 그렇다면 자기풍자와 고백으로 시작된 해방기 채만식 문학은 과연 인생과 사회에 대한 허무와 무가치로만 점철되어 있을까. 이 글에서는 해방기 채만식의 소설들을 탈고 순²⁴⁾으로 읽으며,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22) 앞의 책, 411면.

23) 최재서, 『풍자문학론(諷刺文學論) : 문단위기(文壇危機)의 타개책(打開策)으로서』(《조선일보》, 1935. 7), 『최재서 평론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 194면 참고.

24) 해방기 채만식은 모든 소설의 말미에 탈고일과 탈고장소를 기록해두었다. 이를 통해 해방기 채만식의 현실인식과 시대감각의 변화를 시간 순서대로 추적해보는 일이 가능해졌다. 본고에서 대상작품으로 삼는 채만식의 해방기 소설 13편을 탈고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맹순사』(1945. 12. 19) ② 『미스터 방』(1946. 2. 16) ③ 『논 이야기』(1946. 4. 18) ④ 『역로』(1946. 4. 24) ⑤ 『민족의 죄인』(1946. 5. 19) ⑥ 『허생전』(1946. 9. 16) ⑦ 『옥랑사』(1948. 1. 18) ⑧ 『도야지』(1948. 6. 22) ⑨ 『낙조』(1948. 8. 15) ⑩ 『역사 - 충기 좋은 할머니』(1948. 12. 5) ⑪ 『아시아의 운명』(1948) ⑫ 『늙은 극동선수』(1949. 1. 3) ⑬ 『소년은 자란다』(1949. 2. 25)

2. 절망의 시공간, 해방 전후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

여기에서는 해방기를 살아가는 채만식 풍자소설의 부정적 인물들을 통해 그의 해방기 시대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채만식이 해방 후 가장 먼저 쓴 소설은 『맹순사』다. 아내 서분이의 타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소설에서 맹순사는 “못남 남편”²⁵⁾이자 “좋게 말하면 원만ियो, 사실대로 말하면 반편스럽고 지조없고 무능”(261)한 인물이다. 일제하에서 순사를 하며 뇌물로 생활을 꾸려 왔으면서도, 그 규모가 타인에 비해 작으니 이 정도면 ‘청백하다’고 생각하는 이 인물에 대해 채만식은 “쓰레기판만 뒤지다가, 소위 청백한 채로 칼을 풀어놓고 말았”(263)던 인물로 희화화한다. 남들처럼 큰 몫 하나 잡지 못해 자기의지와 상관없이 청백순사가 된 사람, 그런데 그가 다시 해방공간의 ‘새 순사’가 된다. 해방 후 일제출신 경찰관이 전체의 20%를 차지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나 채만식은 맹순사가 “모자도 정복도 패검도 다 옛것이나 완장 한 벌로써 새조선의 경관”(266)이 된 기막힌 현실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 새 조선의 경관은 자신을 적의와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변했음을 깨닫지만, 과거를 반성하거나 각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함부로 체포도 아니하고, 위협도 아니하고, 뺨 같은 것은 물론 때리지 못하게 되었고 하니, 전보다 친근스러워하고 안심한 얼굴로 대하고 하여야 할 것인데, 대체 웬일인지를 모르겠었다.²⁶⁾

맹순사는 과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멸에 찬 눈초리를 보고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그가

25) 채만식, 『맹순사』(1945), 『채만식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260면.

26) 위의 책, 264면.

죄의식을 갖고 있다면, 해방공간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은 바로 “백성들”²⁷⁾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맹순사는 오히려 해방 전 살인강도로 무기징역수였던 ‘강봉세’를 동기로 만나자 신변의 위협과 공포를 느껴 그길로 사직서를 쓴다. 그리고 소설은 맹순사의 ‘자기풍자적’ 말로써 끝난다. “허기야 예전 순사라는 게 살인강도허구 다를 게 있었나! 남의 재물 강제루 뺏어먹구, 생사람 죽이구 하긴 매일반이었지.”(268)

해방 전후 달라진 것과 그대로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통찰력 있는 또 다른 소설로 『미스터 방』(1946)을 들 수 있다. 여기에도 역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해방 전 “낮 놓고 기억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²⁸⁾이었던 “신기료장수 코빼뜰이 삼복”(297)은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을 계기로 ‘미스터 방’으로 불리게 된다. 이를 채만식은 “승차(陞差)”(297)라고 표현한다. 미군에 의해 불리는 이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까지 꺾 상승했다는 뜻이다. 해방 전에는 “일본으로, 청국으로, 십여 년 타국 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고거야?”(294)라는 말로 무시당하던 삼복은, 조금 익혀놓은 ‘영어’²⁹⁾ 덕분에 이제는 과거 은행 중역

27) 채만식의 『역로』를 보면, 친일의 과거 때문에 죄인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다는 ‘나에게 ‘김군이’ “그 고약한 체취라는 걸 말할시킬 방도”라면서 “아미정수두 좋구 모리행위두 무방하니 어쨌든 돈을 산더미만침 잡아가지굴랑 정당이란 정당은 머 깡그리 물쓰듯시 자금을 대요. 또 신문 잡지두 매수하구 사회 단체에두 들입다 기부금을 내구. 그런다치면 그 고약하던 체취가 담박 그대루 불란서의 고급향수처럼 향그러운 체취루 변하는 동시에 들 코를 별썩거리면서 머릴 싸구 자네 주위루 물려들어, 아 향그러운 그대의 체위여 하구 찬미를 할 테니.”라는 말에 ‘나가 “홍 백성들두?”라고 답하는 장면이 있다. 이는 모두가 민족건설의 새 시대에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혼란한 해방정국의 상황 속에서 정작 국민들의 존재는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8) 채만식, 『미스터 방』(1946), 『채만식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293면.

29) 해방 이후 새로운 세계에서 ‘영어’가 부여하는 권력이 매우 큰 것이었다. 미군정의 점령과 더불어 상류한 영어를 중심으로 정치적, 문화적 헤게모니가 새롭게 형성되었는데, 1945년 9월 ‘조선인민에게 포고함’이라는 포고령 제5조에는 ‘군정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1945년 9월 12일 미군정 수립 이후 영어는 조선에서 공식어가 되었다. 조선은 또다시 새로운 이중어의 사용 시기를 맞은 것이다. 미국이 관료를 선발하면서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바로 영어 능력이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교육받은 인

의 사택이었다는 호화스러운 저택에 산다. 그의 앞에 마주 앉은 백 주사는 해방 전 아들이 순사노릇을 하면서 모아놓았던 재산을 8·15 그날 군중의 습격으로 한 번에 잃자 그 복수심으로 살던 인물로, 제법 큰 권세를 누리게 된 듯 보이는 삼복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자 미군을 통해 재산을 다시 찾을 방도를 부탁하려 그를 따라왔다. 미스터 방은 그런 백 주사에게 자신의 ‘힘’을 마음껏 과시한다.

“머,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번만 떨어진다치면, 기관총 들멘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발을 만들어놓는다, 쑥발을. ……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바리유.”³⁰⁾

그러나 채만식은 이러한 인물의 거만을 길게 보여주지 않는다. 이 말을 끝으로 입안을 행군 물을 뱉으러 노대(발코니)로 나간 미스터 방이 그 물을 하필 S소위의 얼굴에 실수로 뱉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기 때문이다.

“유 메빌!”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짹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칠척 어퍼컷트로 한대 갈겼더라고.³¹⁾

물들이나 이승만, 조병옥, 백낙준, 김성수 등이 활약하였다. 특히 행정 분야에는 친미 관료들이 등용되었고 미국유학을 경험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미군정기는 ‘통역관정부’라고도 불렸다.

신정은, 『해방기 잡지의 문예평론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02-103면 참고.

30) 채만식, 앞의 책, 302-303면.

31) 위의 책, 303면.

‘코빼뜰이 방삼복이 ‘미스터 방’, ‘방선생’이 된 것처럼 해방 전후는 마치 천지가 개벽한 듯 변했지만, 채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군에 의해 한순간 ‘상놈의 자식’의 위치로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여전히 세계의 ‘비주체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해방 전후 그대로인 것은 또 있다. 백 주사가 해방 전 누렸던 부는 일제하에서 일본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착복한 것이며, 미스터 방이 해방 후 누리는 부는 미군정하에서 미국으로부터 허락된 것이다. 인물이 그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채만식은 그들을 진짜 현실 앞에 놓이게 한다. 그의 풍자는 표면적으로는 과거를 잊은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에 대한 조롱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 존재의 ‘무력함’을 강조하는 것에 가깝다.

『논 이야기』(1946)에는 해방이 별다른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한 생원(한덕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한 생원네는 “나라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내 나라로 있을 적부터 가난한 소작농”³²⁾이었다. 한 생원에게 해방은, 구한국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가 기억하는 구한국의 상징적인 장면은 아버지 한태수가 억울하게 동학의 잔당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일이다. 그때 한 생원은 ‘피와 땀이 어린 땅’을 사또에게 바치고서야 아버지를 구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합병했을 때 “그간 놈의 나라, 시언히 잘 망했지.”(308)라고 했다. 일제하에서 한 생원은 ‘길쭉’이라는 일본인이 시세의 곱절 값으로 조선 땅을 모조리 사 모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논을 팔았다. 그러나 해방을 맞아 일인들이 토지와 그 밖에 온갖 재산을 다 내놓고 쫓겨 갔다는 소식을 듣자, 한 생원은 다시 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일본인이 주인이었던 땅은 다시 원주인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한 생원 앞에 ‘계약서’를 가진 새 주인이 등장하자, 절망한 그는 “독립됐다고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 했지.”(325)라

32) 채만식, 『논 이야기』(1946), 『채만식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308면.

고 말한다. 이 소설은 일인토지의 귀속문제³³⁾를 비판적으로 다룸으로써 해방기 사회구조와 농민 사이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었으나, 한 생원이라는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논 이야기’를 민족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로 끌어내린다. 이는 채만식이 한 생원의 억울함보다는 그의 ‘몰염치함’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방 후 1년 이내에 쓰인 이 세 편의 소설은 채만식의 탁월한 현실감각을 잘 보여준다. 가장 처음 쓴 『맹순사』에서 채만식은 일제하에서 순사였던 인물이 해방 후 또다시 순사가 되는 모습을 통해 해방공간의 ‘식민지적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방삼복의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미스터 방』)라는 말과 허 생원의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논 이야기』)이라는 표현을 통해 일반 백성에게 있어 이 ‘나라’나 ‘민족’의 존재란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맹 순사(『맹순사』), 백 주사(『미스터 방』), 한 생원(『논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모두 ‘해방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다. 일제하에서 맹순사는 사람들로 부터 뇌물을 받거나,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술대접을 부지기수로 받았으나, 지금은 생활난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백주사는 “남들이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 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

33) 해방직후 인구의 3/4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농업종사 인구의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던 역사적 현실을 상기하여본다면, 해방기 농민적 토지소유의 완전한 실현은 참다운 해방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전국준비위원회에서는 일인토로부터 귀속농지를 국유화하여 소작인들의 연고권을 우선하여 무상분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미군정이 통치권을 장악하면서 귀속농지는 일단 국유화한 다음 농민들에게 유상분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미군정은 국내 친일파의 재산과 토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일부 귀속재산이 친일적인 연고자에게 불허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는 당시 자본가와 지주층 등의 친일세력에게는 유리하나 노동자·소작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치로 국내의 여론과도 상반되는 것이었다.

전홍남, 앞의 책, 180면 참고.

지 않는 날이 없었”³⁴⁾지만, 지금은 그 재산 좀 찾아보겠다고 방삼복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 앉아있다. 한 생원은 어떠한가. 그가 일생 겪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잖아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³⁵⁾이었다. 그러니 “해방의 혜택”(「미스터 방」은커녕 가졌던 것조차 잃을 판인 이들에게 해방은 하나도 반가울 것이 못 되는 것이다. 채만식은 이들의 몰염치한 모습과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풍자적으로 그리면서도, 그러나 그것 또한 개인의 잘못이 아닌 세계의 잘못임을 보여준다. 이 세계가 친일파에게 너무나 손쉽게 면죄부를 주고, 다시금 누군가에 기생하며 살도록 만들고, “죄에 상당한 증거”(「역로」)도 없이 다시 그들의 팔에 완장(「맹순사」)을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의 세상이 제대로 된 가치로 구성되기 어려울 것임을 예견하게 한다. 해방기 채만식의 첫 작품이 바로 「맹순사」로부터 시작되는 것 또한 이러한 절망적 시대감과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회복의 시공간, 역사의 반복과 단절을 통한 경고

역사는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고 일러 왔다. 그러하건만 세상은 바야흐로 옛 그 『치숙』의 시절을 방불케 함이 없지가 못하다. 저 무력이 강하고, 문화가 앞서고, 물화(物貨)가 풍성·화려하고 한 침략 외세를 승인하고, 그를 숭배하고 찬미하고, 그에 자진 굴복·아부하고, 그에 동화(同化)되고 함으로써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하는 것이 당당히 신념화하였고 한 「치숙」의 주인공 ‘나’……이 ‘나류의 인물’이, 위로는 일부 지도자라는 사람네로부터 아래로는 주둔 외군의 심부름꾼에 이르기까지 1948년의 오늘에 또다시 이 땅에 충만하여 있음을 무엇으로 설명하여야 할

34) 채만식, 「미스터 방」, 앞의 책, 300면.

35) 채만식, 「논 이야기」, 앞의 책, 309면.

것인지. 생각컨대, 역사는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면, 역사가 정녕 아직도 「치숙」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이
라.³⁶⁾

채만식은 “나는 八·一五의 그런 편안한 해방을 우리가 황재할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³⁷⁾고 말했다. 그에게 해방은 ‘뜻밖에 얻은 것’, ‘횡재(橫財)한 것이었다. 이 표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주체의 피동성이다. 내가 아닌 남에 의해 이루어진 것, 채만식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것 또한 바로 이 부분이다. 세계의 비주체적 존재로서의 조선(인). 해방기 채만식은 조선근대사에서 반복되는 역사적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여기서는 ‘구한국의 역사’를 다룬 『옥랑사(玉娘祠)』와 「역사」³⁾연작을 통해 채만식이 ‘과거’를 통해 우리에게 한 예언과 경고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옥랑사』(1948)는 ‘장선용’이라는 인물의 사랑과 일대기를 내용으로 하는 역사소설이다. 소설은 크게 두 개의 중심 서사로 구성되는데 그중 하나는 ‘옥랑’이라는 여인에 대한 사랑, 다른 하나는 주인공이 구한말의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동학, 독립협회 등에 뛰어들었다가 겪는 좌절이다. 옥랑에 대한 사랑은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반면, 구한말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에도 인물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강사(講史)’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이 소설의 한계로 지적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³⁸⁾ 소설은

36) 채만식, 『살난 사람들』 후기.

(조창환, 앞의 책, 104면에서 재인용)

37) 채만식, 「민족의 죄인」, 앞의 책, 1948. 10, 36면.

38) 그러나 이 소설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기와 사건들을 상기하여 볼 때, 이는 선용이라는 인물 형에 의해 노정된 한계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역사적 국면에서 결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도적 인물’이 될 경우 그는 1910년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 없다. 소설이 구한국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묘사하고 있는 만큼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이 역사적 혼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되어야만 한다. 채만식은 이 소설에서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아관파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3장은 선용이 양반을 상대로 반감을 갖게 된 계기와 옥랑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서청(書廳)의 도서원(都書員)이었던 아버지가 요포(料布)가 밀린 병정들로부터 매를 맞고 죽자 “양반이니 권력이니 하는 것에 대하여 어린 가슴에 사무치는 원한과 반감”³⁹⁾(18)을 가지게 된 ‘아전의 아들’ 장선용은 우연히 ‘양반의 딸’ 백옥랑⁴⁰⁾을 구해주며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상하귀천과 내외분별”(32)을 가리지 못했다는 말로 혼인을 거절당하자 양반에 대한 반감과 증오가 더욱 커져, 그 길로 집을 나와 전국팔도를 떠돌며 역사적 사건속으로 들어간다. 4~7장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서 채만식은 선용을 통해 틈만 나면 마주걸이에 사람을 묶어놓고 때리기를 일삼는 토호(土豪) ‘최집’을 똑같은 방법으로 혼내주기도 하고, 「성은 이 금수에 미치다」라는 장을 통해 민씨가문의 세력이 왕을 압도해 돈만 있으면 개도 감투를 쓸 수 있었던⁴¹⁾ 당시 사회상을 풍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면서 채만식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개화에는 찬성하지만, 자기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화당의 득세와 함께 조선에 일본군이 들어오자 선용은 동학에 합류하지만, 일본군에 의해 동학난이 평정되고 그 과정에서 평소 존경하던 셋째 외숙 ‘채춘’이 처형당하자 크게 분노한다. 그런데 이때 선용의 분노는 ‘일본’보다는 외세를 국내정치와 사회에 개입시킨 ‘개화당’을 향해있다. 다음은 이 소설에 나타난 개화당에 대한 부정적 서술들이다.

천, 만민공동회까지 1894년부터 1898년까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선용은 ‘중안’이라는 신분의 한계, 아버지의 죽음 이후 글공부를 작파하고 농사만 짓고 살았던 이력 등으로 인해 이 역사적 사건들의 중심인물보다는 주변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39) 채만식, 『옥랑사』(1948), 『채만식전집』5, 창작과비평사, 1989, 18면.

40) 소설 초반에 ‘옥봉’이던 인물의 이름은 후에 ‘옥랑’으로 바뀐다. 여기에서는 제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옥랑으로 통일하겠다.

41) 이는 윤효정이 고종 때 쓴 ‘풍운 한말비사(風雲 韓末秘史)’에 수록된 이야기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1) “개화는 불가불 해야겠습니다. 고 왜놈들 뇌꼴스러, 우리두 어서어서 개화해 가지구 보아란드끼 살아야 하긴 하겠습니까.(……)그렇지만 남의 불에 게 잡아 무얼 허우?(……)자기네 힘이라곤 한푼에치두 없어가지구.(……)아무 힘도 없이 가만히 앉았다 왜놈들이 와서……와서가 아니라, 개화당이 불러왔지요. 그래, 왜병이 원세개허구 민가를 때려 내쫓아 주니깐 얼씨구나 우우 나서가지구는 무얼 어찌구어찌구. 그게 애들 장난이지, 나라일하는 거요?”⁴²⁾

(2) (개화당이 주장하는 혁신정치란) 조정의 간신과 악신을 물리치고, 나라를 도우며,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져 편안히 한다는 동학군의 도창과 다를 것이 없지 않으나. 그런 동학군을 개화당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하에서 함부로 붙잡아 죽이고 있다니. …… 항차,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을 짐승 잡아 죽이듯 죽이다니.⁴³⁾

소설의 8~9장은 1895년의 을미사변, 1896년 아관파천, 1898년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대립에 대해 다룬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 온 역사를 폭로하고 독립 정신을 고취하며, 외국이나 정부의 손에 맡길 게 아니라 국민이 주체가 되어 자주독립의 길을 열자는 ‘독립협회’의 취지는 이 소설의 주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채만식은 이를 긍정적으로 서술하지만, 이 독립협회 또한 배후에는 미국이 있는 만큼 “독립협회 역시 개화당과 일본과가 실패한 길을 밟고 말 것이나 아닐는지 모르는 노릇”(114)이라며, 외세의 개입을 우려한다. 10~12장은 선용과 옥랑의 관계와 선용의 최후에 대해 다룬다. 1910년 결국 한일합방이 되자, 그는 조선은 ‘종의 자식’ 신세만도 못하다고 느낀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때려누구서 집어삼키더니, 이번엔 청국허구 아라사를 때려누구서 일본이 늘림 집어삼켰으니,

42) 앞의 책, 85-86면.

43) 위의 책, 101면.

이담엔 그럼 아라사가 일본을 때려누면 아라사가 집어삼키구, 미국이나 영국 법국이 일본을 때려누면, 미국이나 영국 법국이 집어삼키구 하렀다…… 이리절지 팔려다니는 종의 자식 신세만두 못하구나.”⁴⁴⁾

나라는 또다시 일본에게 빼앗기고, 일생을 사랑해온 옥랑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마저 죽자 선용은 절망한다. 그 뒤 4년 동안, 노루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일인과 일인의 차인꾼, 순사, 헌병, 헌병 보조원들이 살해되는 일이 생겨난다. 이는 선용의 “인간 사냥질”(165)⁴⁵⁾이었다. 그러는 와중에도 초하룻날이면 옥랑의 사당을 찾아 명복을 빌던 선용은 그곳에서 나무꾼으로 위장한 헌병과 보조원에게 비극적 죽임을 당한다.

『역사』3연작은 1948년 호남 중부지방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한 ‘총기 좋은 할머니’가 구한국부터 해방정국까지의 불안정한 역사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구성의 소설이다. 『옥랑사』와 비교했을 때, 강사(講史)적 성격은 훨씬 더 강해지고 서사는 매우 약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소설의 외부서사는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할머니가 자손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외에 다른 사건이 없다. 그렇다면 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서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3연작의 주인공이 ‘총기 좋은’, ‘할머니’인 이유는, 1871년 총소리를 들으며 태어나(신미양요를 뜻함) 1948년 현재까지도 총소리(여순사건으로 인한 계엄령을 뜻함)를 듣는 긴 폭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박식하고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 역사적 사건들을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풀어놓도록 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 서다. 이 소설은 구한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1890년대를 중점적으로 다룬

44) 앞의 책, 162면.

45) 이 소설에서 채만식은 선용의 행위를 항일운동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선용은 한 자루의 총으로 능히 일본을 물리치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이왕에 내친 걸음이요 살 멧없는 세상이니, 아무 때고 저의 손에 죽는 날까지 분풀이나 하면서 날뛰는 것 날뛰는 것이었었다.”(164-165면)라는 서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용의 행위가 ‘민족감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옥랑사』와 달리 1866년 구미의 선원들이 조선에 통상(通商)을 요구하며 나타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역사』에서는 신미양요, 1875년 운요호(운용호)사건, 1876년 강화도조약까지 이야기(내부서사)한 후, 할머니의 하품으로 소설이 끝나고, 『아시아의 운명』에서는 구한국의 정세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소설에서 또한 채만식은 ‘개화당’의 “쿠데타”⁴⁶⁾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한다.

혹자는 말하기를 갑신 쿠데타에 개화당이 실패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조선은 그 뒤의 우리가 겪은 비참한 역사를 밟지 않았으리라고도 한다. 혹은 그렇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가령 일본측의 군사적 원조가 여의하여 개화당이 잡은바 정권을 그대로 지탱하고 차차로 지반을 굳히면서 안으로는 개혁을 추진시키고 밖으로는 청국의 기반을 벗어나 자주독립의 길을 밟아나가고 있었다고 하자. 그 다음 일본은 조선을 어떻게 대하였을 것인가, 앞문으로 늙은 사자 청국을 내쫓고, 뒷문으로 들어온 어린 새끼가 일본이 과연 고소한 고깃덩이 조선을 도로 뺏어놓고 암전히 물러나갔을 것일까.⁴⁷⁾

당시 무섭게 늘어가던 일본의 국력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볼 때, 채만식은 일본의 조선지배는 필연적이었을 것으로 보았다. 『늙은 극동선수』에는 강화도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땅에 나타나기 시작한 일본인들로 인해 “큰 사회적 혁변”⁴⁸⁾을 겪는 조선의 상황이 그려진다. ‘개화당’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주를 이루며 이에 대한 백성들의 불평과 배척, 조선의 몰락은 ‘운명’이었다는 서술이 두드러진다. 채만식은 백제 의자왕, 신라 경순왕, 고려 공민왕에 대해 ‘왕조를 그의 손에서 문단헌 최후의 군왕’이라 표현하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민족국가를 망하게 한 것은

46) 채만식, 『아시아의 운명』(1948), 『채만식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485면.

47) 위의 책, 486-487면.

48) 채만식, 『늙은 극동선수』(1949), 『채만식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518면.

아니니 “민족에 대하여서는 죄인이 아니었었다.”(530)라고 서술한다. 그러나 고종에 대해서는 “왕조의 창업시조(創業始祖) 이성계 이하 스물다섯 대의 선대에게 죄인인 동시에, 일찌기 조선에는 없던 민족의 죄인”(531)이라고 말한다. 타민족 일본에게 병합이 됨으로써 민족국가가 소멸되게 한 죄가 크다는 것이다.

개화기의 역사 속에서 채만식은 ‘지금 조선은 왜 이렇게 되었나’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해방기에 쓰인 채만식의 네 편의 역사소설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또한 섬뜩한 예언이기도 하다. 조선이 망한 것은 외세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진단과 함께,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충분히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 때문이다. 채만식은 역사가 반복되면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일 뿐이며, 외세에 의존하여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해방기도 결코 호시절은 되어주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과거의 극복과 (민족)정체성의 확립은 새로운 역사의 흐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4. 가능성의 시공간, ‘양서동물’이 아닐 수 있다면

채만식은 해방공간을 두 개의 세계로 양분한다. ‘잘난 사람들’⁴⁹⁾과 ‘못난 사람들’의 세계, ‘물고기가 사는 물속’과 ‘사람이 사는 육지’. 이는 자연스럽게 ‘민족의 죄인’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민족의 죄인’에서 ‘일체화의 자신’을 “보기 싫은 양서동물(兩棲動物)”⁵⁰⁾에 빗대어 말했다. 어류와 파충류의 중간, 물 안과 밖 모두에서 살 수 있는 양서동물은 일체화에서의 채만식의 불확실한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이 양서동

49) 이는 1948년 민중서관에서 발행한 채만식 소설집의 제목이기도 했다. 이 소설집에는 「낙조」, 「도야지」, 「논 이야기」, 「맹순사」, 「미스터방」, 「치숙」, 「이런 남매」가 실렸다.

50) 채만식, 「민족의 죄인」, 『백민』, 1941. 1. 53면.

물이라는 표현은 외세(일본)에 기생하여 사는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풍자한 것이기도 했다. 세계의 비주체로서 존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혐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해방기에도 여전했다. 그럼에도 다른 점이 있다면, 해방기 그가 변화의 ‘가능성’을 꿈꿔보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허생전』⁵¹⁾을 쓰기도 하고, 『도야지』의 문태석과 『소년은 자란다』의 유영호 같은 인물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들은 해방기 채만식의 소설에서 매우 이질적인 인물들이다. 태석과 영호의 공통점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앞서 채만식의 부정적 인물에 대한 풍자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를 책임질 필요도, 그만큼 반성할만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도야지』(1948)의 문태석은 “불온하고 극렬하기”⁵²⁾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명 높은 교내 웅변부의 리더다. ××××당의 ××부 당부의 최고책임자이자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 중인 아버지 문영환의 입장에서 아들은 “빨갱이”(336)이며, “지울 수 없는 불명예요 정치상의 커다란 손실”(335)이다. 태석은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여기지는 않으나 아버지에게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점이 꼭 유쾌하였으며, 동시에 그런 아버지의 자식인 것이 슬펐다. 이 소설에서 ‘빨갱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채만식은 “사회적 환경으로나 나이로나 아직 확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잡힌 것이 아니요, 단지 추잡한 것과 부정사악(不正邪惡)한 것과 불의한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과 바르고 참된 것과 정의를 동경 추구하는 청소년들,

51) 『허생전』은 자유로운 설화적 세계에서 채만식의 이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허생은 정치적으로 자주독립한 공간 속에서 평등한 관계, 평등한 분배를 바탕으로 구성된 윤리적 사회를 3년 만에 이루어낸 인물, 그럼에도 지도자를 자처하지도, 부를 축적하지도 않고 원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상적 모델이지만, 설화적 존재에 머물 때에만 가능한 서사인 것이다.

52) 채만식, 『도야지』(1948), 『채만식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326면.

그밖에도 xxx과 xxxx당의 정치노선을 따르지 않는 모든 양심적이지요 애국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빨갱이라고 불렀느니라.”(335-6)라고 해학적으로 썼다. 태석과 웅변부 친구들은 교단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의 정견발표를 훑내내며 조롱한다. 내용은 3·8선 철폐, 남북통일 달성, 농촌전화(農村電化)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묻는 질문마다 후보역의 친구는 “조선독립 원하는 우리 미국에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350)로 대답하고, 다른 동기생들은 뭔가를 알았다는 듯, “옳아…… 연사 양반 성명이 무어죠?”라고 묻는다. “문영환이요.”라고 답하는 이 연극에는 친미우파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이들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소년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가능성이 담겨있다. 결국 아버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게 되고, 어머니는 잔치를 위해 주문한 ‘도야지’를 돌려보낸다. 아버지의 낙방과 도야지 낙방의 웃음거리 한 막을 구경한 태석은 상쾌한 기분으로 집을 나선다. 사실상 구분이 무의미하지만, ‘친일파(매형)-친미우파(아버지)-기독교인(가족들)’에 대한 비판이 모두 담겨있는 이 소설에서 태석은, 이중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길을 택한다. 그러나 태석이 아버지를 비롯한 이 기성세대를 모두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결백(潔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해방기 마지막 소설 『소년이 자란다』(1949)에 또한 『도야지』의 태석처럼 죄로부터 결백한 소년, 영호가 등장한다. 채만식은 영호를 물리적으로 기성세대와 철저히 분리시킴으로써 조선의 소년소녀가 앞으로 가야할 길은 이전과는 다른 길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호’는 해방기 채만식의 소설의 등장인물 중 가장 불행한 인물로, 해방을 맞아 만주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막냇동생이 죽고, 가까스로 도착한 서울에서는 고생만 하다 ‘전라도 어딘가’로 떠나는 길에 아버지마저 잃으며 여동생과 단둘이 고아가 되는 인물이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영호가 느끼는 해방에 대한 실감은 “타국으로 흘러가서 간신히 의지하고 살던 집과, 농

사하던 땅이며, 농사 진 곡식, 애탄가탄 장만한 세간과, 더러는 어머니까지도 **해방은 우리에게서 뺏은 것이 아닌가?**⁵³⁾하는 것이다. 17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의 분량 가운데 1~8장까지는 영호의 부모가 ‘만주’에 자리를 잡게 된 역사, 해방을 맞은 만주의 풍경,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떠난 길에서 어머니와 막냇동생을 잃기까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9~10장까지는 ‘서울’에서의 막막한 생활, 11~12장은 ‘기차’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호·영자의 상황, 13~17장까지는 ‘이리’에 내린 오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고생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1~8장까지의 긴 만주 서사가 의미하는 것은 이 소설이 이전 채만식의 해방기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해방의 실감’을 부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호강을 꿈꾸면서 길 떠나려던 길”(336)에 고국 땅은 밟아보지도 못한 채 ‘되놈’들에게 겁탈을 당해 길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죽음은 해방의 ‘비극적’ 실감을 강조하고, 이때 조선인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제길헐! 해방값 비싸다!”(334)라는 말은 해방의 혜택보다는 상실이 더 큰 귀환전재민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물고기가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붙인 14장이다. 한 달간 이리역 정거장에 머물며 아버지를 기다리던 영호가 동생과 함께 살길을 모색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의 내용으로, 여관의 ‘끌이꾼’ 노릇이라도 하여 밥이라도 얻어먹을 요량으로 찾아간 한 여관에서 주인여자와 그 언니를 만난다. 주인여자는 영호를 심부름꾼으로 두려하고, 여자의 언니는 보모역할로 영자를 탐낸다. 영호는 영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주인여자의 언니로부터 그건 “느이가 안직구 고생을, 눈물 빠지는 고생을 못해봐 호강”(390)스러운 것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자신의 목적대로 어린아이들을 휘두르기 위해 박정환 말을 서슴지 않는 여자를 보며 영호는 생각한다.

53) 채만식, 『소년은 자란다』(1949), 『채만식전집』6, 창작과비평사, 1989, 404면.

서울서 많이 보던 양복과 옷을 잘 입고 신수가 흰하고 한 **훌륭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자들도 도저히 영호와 한 조선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도 조선 사람은 역시 조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 사람들이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속과 사람이 살고 있는 육지**와가 다른 것처럼, 서로 오고가고 할 수 없는 세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와 사람이 서로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요 한 것이었다. (……) 그들은 물고기를 만지기 같은 적실히 차가운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다.⁵⁴⁾

이처럼 채만식의 해방기 소설에서 사람에 대한 인식은 철저히 양분되어 나타난다. ‘부자’와 ‘빈자’가 그것이다. 『소년은 자란다』에서 ‘부자’는 곧 ‘훌륭한 사람들’, ‘물고기가 살고 있는 물속’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이때 ‘훌륭하다’라는 말은 일종의 반어로, “차갑고 불임성이 없고, 테데하고, 남의 곤경을 알아줄 줄을 모르고 하는”(398), 양심과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 반면 ‘빈자’는 “따뜻하고 흥허물 없고, 임의롭고 구수한 맛이 나는”(398) 사람들이다. 소설 속에서 어린 오누이를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한 이들이었다. 기차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버지를 잃었다는 어린 오누이를 위해 푼돈을 모아 주었고, 이리역 정거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정거장의 떡장수 할머니는 떡을 내주었다. 그러나 영호가 만난 부자들은 하나같이 타인의 불행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있었다. 여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영호는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게 되었고, 자신 또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 대목에서 소설의 메시지는 뚜렷해진다. 이 어린 소년은 5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여관(물속)에서 부자들(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도 ‘물고기’가 되지 않는다. 이는 영호가 기본적으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이기 때문

54) 앞의 책, 389면.

이기도 하지만, 일찍이 ‘가난한 사람들’의 온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채만식은 부자(훌륭한 사람)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임을, 이 세상이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전과 다른 삶이 펼쳐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채만식의 해방기 마지막 소설에 이르러서도 ‘해방’은 민중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지 못한다. 소설이 끝날 때까지 소년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며, 삶은 극적으로 전환되지도 희망적인 미래를 예고하지도 않는다. 세계의 부정적 위력은 대단하고, 현실에 대한 채만식의 비판이 신랄할수록 인물이 이를 극복하기란 벽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구석마다 서로를 안타까워하고, 눈물짓고, 도와주는 ‘못난 사람들’이 미약하지만 큰 빛을 내뿜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못난 사람들의 ‘연대’는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잘난 사람들’과는 기꺼이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태석과 영호를 통해 채만식은 이들의 삶은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 기대했다. 그래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고, 결백한 이들의 존재는 채만식이 혼란한 해방기의 문학 속에 공들여 심어놓은,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라 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해방기 채만식 소설의 자기풍자적 성격에 주목하고, 채만식이 인식한 해방기를 고백, 절망, 회복, 가능성의 시공간으로 분절하여 그 미시적 편차를 추적하고 논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해방기 채만식 문학에 대한 논의가 그의 해방기 작품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해방 바로 다음날 한청빌딩에 간판을 내건 ‘조선문학건설본부’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의 소탕, 봉건주의 잔재의 청산, 국수주의 배격의 3대 강령을 내세우며 등장했다. ‘조선문학건설본부’와 ‘조선프

롤레타리아문학동맹'이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합쳐지던 혼란기에 채만식은 뒤늦게 상경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민족문학'의 주도권 다툼에 혈안이 된 문인들을 목도한다. 친일배격을 표면에 내세운 이들은 과거 '조선문인협회' 회원으로 주도적인 활동을 하던 인물들이었다. 그길로 다시 낙향한 채만식은, 작고할 때까지 중앙문단과 절연하였다.⁵⁵⁾ 해방기의 채만식이 다시 풍자의 세계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그에게 해방기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준다. 풍자는 동서양 역사에서 모두 "전통 해체에 대한 전례 없이 절박한 역사의식 속에서 출현"⁵⁶⁾했으며, 일찍이 쉴러(Schiller, 1795)에 의해 "시인이 자연과 분리될 때, 즉 자연과의 소박한 결합을 상실했을 때 생겨나는 중요한 형식들 중의 하나"⁵⁷⁾로 파악되었다. 채만식은 해방을 맞은 다른 작가들처럼 기쁨과 희망의 미래를 구가하지 않았다. 언제 죄의 대가를 받을지 모르기에, 해방기는 채만식 개인에게 있어 '불안의 시공간'이었다. 그는 그가 해방기 소설을 통해 비판한 수많은 친일파들처럼 자신의 과거를 손쉽게 떨쳐버릴 인물이 못 되었다. 결국 풍자의 메스를 자신 쪽으로 돌리면서, 채만식의 '죄의식'은 해방기 문학 전체를 장악한다.

구한국의 몰락, 일본의 지배, 해방까지. 채만식을 둘러싼 역사와 세계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힘으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했다. 해방은 '남의 불에 게 잡은 것'(『옥랑사』, 『소년은 자란다』)에 불과했고, 채만식이 태어난 이래 5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지켜본 한국(인)의 운명과 역사란 그런 것이었다. 여러 편의 소설을 통해 우리세계에 여전한 '식민성'과 '비주체성'으로 해방기를 진단한 그의 시각은 매우 예리하고도 통찰력 있는 것이었다. 해방기의 채만식은 미군정의 실정(失政), 지식인 계층의 무능함, 기득권자들의 이기심, 마비된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여 '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55) 김홍기, 『채만식 연구』, 국학자료원, 1987, 228-236면 참고.

56) 정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2004, 45면.

57) 게오르그 루카치, 김혜원 번역, 『1930년대 논문선 : 루카치 문학이론』, 세계, 1990, 42면.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으며, 나아가 우리민족이 반복되는 역사의 질곡으로부터 탈출할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채만식, 『민족의 죄인』, 『백민』, 1948. 10, 1949. 1.
_____, 『채만식전집』5, 창작과비평사, 1989.
_____, 『채만식전집』6, 창작과비평사, 1989.
_____, 『채만식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2. 논문

- 공종구, 『채만식 문학의 대일 협력과 반성의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5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5-31면.
김민선, 『해방기 자전적 소설의 고백과 주체 재생의 플롯 - 채만식『민족의 죄인』, 이기영『형관』연구, 『우리어문연구』40, 우리어문학회, 2011, 359-387면.
류보선, 『반성의 윤리성과 탈식민성 : 해방직후 채만식 문학의 한 특성』, 『민족문화사연구』45,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1, 52-88면.
박상준, 『〈민족의 죄인〉과 고백의 전략 - 해방기 채만식 소설세계와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27, 2009, 277-304면.
박수빈, 『일제말기 친일문학의 내적논리와 회고의 전략 - 이광수, 김동인, 채만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신정은, 『해방기 잡지의 문예평론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민영, 『해방기의 자기 고백과 식민사회의 기억 - 이태준의 『해방전후』와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42, 2012, 385-414면.
이상재, 『채만식 풍자소설의 반복과 차이』, 『한민족어문학』69, 한민족어문학회, 2015, 511-545면.
조창환, 『해방 후 채만식 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3, 현대문학이론학회, 1993, 35-54면.

3. 단행본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2, 민음사, 2002.
김용성·우한용 공편, 『한국근대작가연구』, 삼지원, 1985.
김윤식, 『채만식』, 문학과 지성사, 1984.
_____, 정호응 엮음,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김홍기, 『채만식 연구』, 국학자료원, 1987.

- 이주형 편, 『채만식 연구』, 태학사, 2010.
- 전홍남, 『해방기 소설의 시대정신』, 국학자료원, 1999.
- 정홍섭, 『채만식 문학과 풍자의 정신』, 역락, 2004.
- 조남현, 『한국 현대 소설 연구』, 민음사, 1987.
- 최유찬, 『문학의 모험-채만식의 항일투쟁과 문학적 실험』, 역락, 2006.
- 최재서, 『최재서 평론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
- 게오르그 루카치, 김혜원 편역, 『1930년대 논문선 : 루카치 문학이론』, 세계, 1990.
- 필립 르죈,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Self-parody and Sense of the Age in Chae Man-sik Literatur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Park, Subin

This study is to generally explore Chae Man-sik's sense of the age through his novels written in the liberation period: The meaning of liberation and definition of the liberation period as time and space. The starting point of Chae Man-sik literature and heart of the age was his "sense of guilt." He was not free from the sense of guilt until he died after Korea's liberation because he was a pro-Japanese writer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a result, he had some limitations in criticizing and satirizing the realit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He failed to keep distance from targets of criticism and have moral high ground. For this reason, self-parody was striking in his literature. However, this study intends to reveal the fact that his self-parody didn't develop into only nihilism. He criticized the order of the world unchanged before and after liberation in despair through negative characters in his novel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nd warned in his historical novels that if Korea repeated its history of dependence on the power of foreign countries its fate would be endangered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Cautioning against the repetition of history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breakin with the past, he finally foretold the possibility of a new world through the boy-character who was free from the sin and declared the intention to take a different path from the older generation. His literature in the liberation

period, starting from the (ethnic) sense of guilt, showed the coloniality and non-subjectivity still prevalent in our world and furthermore attempted to find the ways in which our people can escape from historical shackles.

Key words: Chae Man-sik, liberation period, sense of guilt, self-confession, self-parody, sense of the age, historical novel, coloniality, non-subjectivity

투 고 일 : 2019년 7월 29일

심 사 일 : 2019년 8월 19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9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9년 9월 26일